



욥의 고엘, 천상의 중재자, 그리고 상상력 (욥기 19:25)

김 준(감신대)

I. 들어가는 말

욥기 19:25는 헨델의 메시아 45번 “내 주는 살아 계시고” (“I know my Redeemer lives”)를 통해서 잘 알려진 욥기 성경구절 중의 하나이다. 욥기 19:25는 부당한 고난으로부터 욥을 구해 줄 “구원자”, 즉 고엘(גֹּאֵל)에 대한 욥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 헨델은 이 곡에서 욥기 19:25-26을 고린도전서 15:20과 함께 인용하여 욥의 고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메시아로 노래하고 있다.¹⁾ 기독교 전통에서는 18세기까지 욥의 고엘을 메시아로 이해하거나(예, 로마의 클레멘트, 오리겐) 부활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해석의 흐름이 있었다(예, 제

1) Daniel I. Block, “Handel’s Messiah: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Didaskalia* 12(2001), 19–20.

롬,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²⁾

그러나 19세기부터 학자들은 욥기 19:25의 본문이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렵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해석을 제안하였다.³⁾ 또한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고엘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고엘에 대해 많은 해석학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9장에서 욥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폭력과 질병으로 인해 피골상접하여 건강과 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살아생전에 자신의 무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말을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강한 소망도 있다. 그리고 욥은 최후의 소망으로 자신의 고엘을 소망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욥의 고엘이 누구인지, 고엘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는 욥이 무죄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이다. 욥의 고엘에 대한 연구는 욥기의 전통적인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욥의 고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⁴⁾

본 논문은 욥기 19장에서 욥이 기대하는 고엘은 욥의 무죄를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천상적인 존재이며, 이 천상적인 존재는 욥이 소망하는 상상적인 존재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로 욥기 19:1-24를 중심으로 욥의 어떠한 상황이 욥으로 하여금 고엘을 애타게 찾게 하였는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욥이 고엘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누가 욥의 고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로 19:25 본문 연구를 통해 욥의 고엘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2) 초대교부 중 크리소스토스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였으며 욥이 이 세상에서의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욥기 19:25-27에 대한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소논문 참조하라. Aron Pinker. "A New Interpretation of Job 19:26," *JHS* 15(2015), 5-6.

3) 참조. Pinker, *위글*, 1-3.

4) 국내의 학술논문으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하경택, "나는 알고 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 욥기 19장 1-29절," *성경연구(설교자를 위한)*, 127 (2005년 6월), 32-46.

셋째로 욱의 고엘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욱의 고엘은 누구인지, 고엘을 통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연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욱의 고엘을 천상적인 존재로 제시하며, 천상적인 존재로 이해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욱의 고엘은 19장 안에서 욱이 소망하던 상상적인 존재임을 제안할 것이다.

II. 욱의 상황: 욱이 적대자들로부터 당한 고난(19:1-24)

1. 욱의 적대자로서의 친구들(19:1-5)

욱의 대화는 앞선 친구들과의 대화, 특히 18장의 빌닷의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빌닷은 18장에서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장황하게 묘사하였다. 빌닷의 말은 잠언이나 시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하지만(잠 10:3; 11:5; 12:13,21; 시 1:6; 31:23),⁵⁾ 빌닷의 묘사 가운데는 욱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⁶⁾

욱기 19장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빌닷과 친구들을 향한 비난으로 시작한다(19:2-6). 욱은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 “마음을 괴롭힘”(2절), “짓부수기”(2절), “학대함”(3절), “자만”(5절), “수치스럽게 함”(5절) 이라는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의 언어 폭력의 반복성을 언급함으로(“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19:3) 욱의 고난이

5) Samuel Balentine, *Job* (Macon, G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2006), 273.

6) 빌닷의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는 욱을 향하여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18:4) 라는 언급 후 시작된다. 욱이 그의 고난과 모든 것을 상실한 후 잣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굽고 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2:8). 계속되는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묘사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며(18:5-6, 18; 참조. 3:3-9), 두려움이 임할 것이며(18:11, 14; 참조. 9:34), 유행이 그의 처소를 무너뜨릴 것이며(18:15; 참조. 1:16), 질병이 피부를 먹은 듯 될 것이며(18:13; 참조. 2:7; 19:20), 후손이 없을 것(18:16-17, 19; 참조. 1:18-19) 등 욱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욱기 1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반드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18:21). Norman Habel,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285.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을만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한다(19:4). 그럼에도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언어폭력을 사용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며, 욥의 고난을 보며 자신들의 의에 대해 자만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한 비난은 19:6에서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간다.

2. 욥의 적대자로서의 하나님 (19:6-22)

욥은 6절부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친구들이 욥에게 행하는 폭력이 언어폭력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묘사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 욥이 묘사하는 적대자로서의 하나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포위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고 파괴된 욥이 묘사되어 있다(19:6-12). 둘째 부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로 부터 관계가 단절된 욥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19:13-22).

1) 욥을 포위 공격하는 하나님 메타포 (19:6-12)

19:6-12에는 욥을 상대로 펼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포위 공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욥이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적대적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19:6)라는 구절과 함께 시작한다. “억울하게 하다”(עוּל)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⁷⁾ 이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옹호하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עוּל)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עוּל)하시겠는

7) Choon Leong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795.

가”(8:3)라고 말하였다. 후에 엘리후 역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גוּט)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한다(34:12). 욥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전의 주장을 넘어서 자신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언급하는 것이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적인 폭력은 가장 큰 폭력이 나타나는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묘사되고 있다: 그물로 에워쌌음(19:6b), 길을 막음(19:8a), 길을 어둡게 함(19:8b), 사면에서 무너뜨림(19:10a), 군대를 보내심(19:12a), 진격로를 만듦(19:12b), 욥의 천막을 포위하심(19:12c). 하나님께서는 사면을 포위하시고, 길을 막으심으로 욥은 피할 수 있는 퇴로도 없는 상황이다. 욥이 불의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응답하거나 도와줄 이도 없다(19:7).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여기시며 적대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9:11).⁸⁾ 욥기 19:6-12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공격은 압도적이고 체계적인 공성전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듯 군대를 보내고, 공성용 둔덕을 쌓아 올리고, 포위하고 있는데, 욥은 그 대상을 거대한 성이 아닌 자신의 천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은 지나치게 압도적인 적대적 공격임을 19:6-12는 묘사하고 있다.

2) 욥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신 하나님(19:13-20)

하나님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비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인관관계를 단절시키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19:13-20). 탄원시편에서 고난 받는 탄원자는 종종 자신이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로부터 소외 받고 있음을 탄식하곤 한다(시 38:11[12]; 41:9[10]; 55:12-13[13-14]; 69:8[9] 88:8[9], 18[19]). 욥이 전통적인 탄식시의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시편의 탄원자의 소외됨과 구분된다. 첫째로, 욥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8) 윗글, 798.

터 소외되고, 조롱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욥은 시편의 탄원자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둘째로, 욥은 자신의 소외된 인간관계의 총체성을 언급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욥과 관계된 모든 지인들의 긴 목록을 열두 개의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⁹⁾ 목록이 계속될수록 욥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외된 것(13-16절)으로부터 출발하여, 싫어함을 당하게 되고(17절), 업신여김을 받고(18a절), 조롱을 당하고(18b절), 미움을 당하고(19a절), 원수가 되는(19b절) 상황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단절된 모든 인간관계는 욥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절에서 욥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건강이 피골상접한 위태로운 상태임을 언급한다(참조. 16:8; 시 102:5[6]; 애 4:8). 데이빗 클린스(David Clines)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는 표현을 욥의 육체적인 상태로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욥의 상태를 메타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욥의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의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 욥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뼈와 살”, 2:5)을 동반한 고난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상태이며(2:7), 친구들이 보기에 욥의 고통은 극심해 보였다(2:13). 기력은 약화되었고(6:11-12) 피골이 상접한 상황으로(16:8)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불쌍히 여겨줄 것을 청원한다(19:22). 심리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을 동반한 육체적인 아픔은 시간이 계속되면서 욥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3. 욥의 최후의 소망들 (19:21-27)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한 욥은, 자신의 상황이 조금

9) Carol Newsom, *The Book of Job*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476.

10) David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450-452.

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경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첫째로 친구들과로 하여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대한다(19:21-22). 둘째로 자신의 말을 철필로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서 자신의 무죄한 고난을 증명하기 원한다(19:23-24).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고엘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19:25-27).

1) 친구들을 향해 긍휼히 여겨주기를 청원 (19:21-22)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력과 고립된 상황을 탄원시의 모티프들을 사용하여 이야기 하였다. 탄원시에서 시편기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청원한다(시 4:2[1]; 6:3[2]; 9:14[13]; 25:16). 그러나 욥은 자신을 위대롭게 만든 적대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시편기자처럼 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대상으로 친구들을 언급한다. “나의 친구야 너 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19:21). 욥은 이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19:6)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부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19:6-20). 욥은 전형적인 탄원시의 모티프를 사용할 때부터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호소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전통적인 경건의 관습적 표현을 패러디 하였다.”¹¹⁾ 욥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긍휼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한 핍박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적대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역시 적대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친구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벨이 지적하듯 욥은 친구들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표현을 냉소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친구들 역시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

11) Newsom, *The Book of Job*, 477.

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욥의 이어지는 말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19:22).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처럼” 욥을 박해하고 있다. 욥은 이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불의하게 말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13:7-8). 특별히 친구들의 폭력에 대해 욥은 내 살로도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피골상절 한 상태가 하나님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원인이 있음을 언급한다. 욥은 19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친구들이 무고한 고소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끝맺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19:28-29).

2) 욥의 무죄함을 영원히 기록으로 새겨두길 소망(19:23-24)

욥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피골상절하여 생명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가족들과 친구들로 부터도 관계가 단절되고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무죄 증명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하는 희망, 책에 쓰였으면 하는 희망(19:23)에 이어서 마침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록되기를 희망하게 된다(19:24).¹³⁾ 영원히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욥의 무죄 증명이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감하였기 때문이다.¹⁴⁾ 욥은 이미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여러 차례 느끼고 있었다(17:1). 욥은 앞선 16장에서 자신

12) Habel, *The Book of Job*, 302.

13) 마빈 폼(Marvin Pope)은 라쉬(Rashi)가 제안한 글자를 바위에 새겨 놓고 뜨겁게 녹여진 납을 새겨진 글 사이에 채워 넣는 방법을 언급하며, 그 예로서 다리우스 1세의 비히스톤 기념비의 한 부분을 예로 든다(주전 515년). Marvin Pope, *Job*, 3rd ed. (AB 15; Garden City, NY: Doubleday, 1973), 144-145; Habel, *The Book of Job*, 292.

14) 새뮤얼 드라이버(Samuel R. Driver)와 매튜 수리아노(Matthew Suriano)는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기록하는 행위를 무덤의 비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vol.1 (ICC; Edinburgh: T. & T. Clark, 1977), 171; Matthew J. Suriano, “Death, Disinheritance, and Job’s Kinsman-Redeemer,” *JBL* 129(2010), 49-66.

의 죽음 이후에도 땅이 자신의 피를 가리지 않아 자신의 무죄함이 계속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었다(16:18; 참조, 창 4:10-11). 욥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죽음 이후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원했다. 문제는 욥의 말이 바위에 새겨져 영원히 남겨지더라도 누군가 욥의 증언을 토대로 욥의 무죄 증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욥의 고엘을 향한 소망(19:25)

ואני ידעתי נאלי חי ואחרון על עפר יקום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19:25)

19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한 고난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소망을 자신의 고엘에 두고 있다. 욥의 고엘에 대한 소망은 가족, 친구, 하나님으로부터 적대시 되어 아무런 위로도 무죄증명을 도와줄 이도 없는 문맥적 상황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욥은 자신의 고엘에 대한 소망을 “나는 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욥이 “나는 안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는 고엘에 대해 확신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 된다. 욥은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열한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9:2, 28; 10:13; 13:2, 18; 19:25; 21:27; 23:3; 29:16; 30:23; 42:2), 그 가운데는 욥이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논쟁의 상황 가운데 냉소적이거나 아이러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⁵⁾ 예를 들면, 욥기 9:2에서 욥은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나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

15) 욥은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열한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9:2, 28; 10:13; 13:2, 18; 19:25; 21:27; 23:3; 29:16; 30:23; 42:2). 마지막(42:3)에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고백을 함으로 앞서 욥이 알고 있었던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Naphtali Meshel, “Whose Job Is This? Dramatic Irony and double entendre in the Book,” Leora Batnitzky, Ilana Pardes eds., *The Book of Job: Aesthetics, Ethics, Hermeneutics* (Boston: de Gruyter, 2015), 66.

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불평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9:2에서 욥이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냉소적 혹은 아이러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⁶⁾ 욥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게 될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면서도(13:18),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나는 안다”라고 모순되게 이야기하고 있다(9:28).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보살피 주시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고난을 마음에 품고 계셨음을 자신이 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0:13). 10:13에서 “나는 안다”라는 표현은 인자하신 모습 뒤에 감추고 계셨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불의한 계획을 욥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욥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씨아오(Choon Leong Seow)는 욥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가 마치 심오한 내적 확신 가운데 고백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⁷⁾ 이처럼 욥의 “나는 안다”라는 표현은 본문의 상황에 따라 사실이나 지식을 아는 것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욥기 19:25의 “나는 안다”는 표현도 욥이 자신의 고엘이 살아계심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관점 보다는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욥이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고엘이 살아 있고, 고엘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욥의 살아 있는 고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엘이 땅 위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엘이 누구인지는 25b(“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16) Driver, 윗글, 84; Gerald Janzen,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90–91; Newsom, *The Book of Job*, 409.

17) Choon Leong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Illuminatio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803.

25b 해석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아하론(אֶהָרֹן)을 부사로 “후일에”로 해석함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혹은 명사로 “마지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욥을 위하여 일어날 자로 해석해야 하는가이다.¹⁸⁾ 아하론을 부사로 이해할 때 현재 욥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기에 고엘은 욥이 살아 있는 최후의 순간 혹은 욥의 사후의 어느 시점에 나타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하론이 명사로 “마지막”과 관련하여 고엘과 동일인물로 해석할 때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욥을 위하여 대변하기 위해 일어날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이사야 44:6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 이해 할 수 있다.¹⁹⁾ 이사야 44:6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엘)”이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아하론)”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사 48:12). 이 경우 욥이 기대하고 있는 고엘은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클린스는 25절의 아하론을 명사로서 “마지막”과 관련하여 법정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의견을 말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²⁰⁾ 욥의 고엘은 욥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할 것인데, 클린스는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사람을 그 소송의 승자로 보고 있다(예, 욥 16:8).²¹⁾ 욥을 최종적으로 변론할 고엘은 그의 가족과 친족 가운데는 남아 있지 않다. 하나님도 법정에서 그와 다투고 있는 관계이므로 욥의 고엘로 등장할 수 없다. 만일 하늘에도 욥을 변론해 줄 대변자가 없다면, 욥에게는 욥 자신 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 클린스는 욥의 고엘을 욥 자신 혹은 욥 자신의 “부르짖음”(16:18)으로 이해하고 있다.²²⁾

25b 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알-아파르 야쿰(עַל-אֶפֶר יָקוּם), “땅위에 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첫째, 아파르를 일반적인 땅으로 이

18) Clines, *Job 1-20*, 460-461; Janzen, *Job*, 140-141; John Gray,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268.

19) Gray, *The Book of Job*, 274; Janzen, *Job*, 140-141.

20) Clines, *Job 1-20*, 460.

21) 클린스와 드라이버는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하는 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Clines, *윗글*, 460.

22) 윗글, 460-461.

해할 수 있다. 25b의 먼지를 의미하는 아파르는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 “땅”(earth)으로 번역한다(ESV, NIV, NRSV, TNK). 한글 성경에서도 대부분 “땅”으로 번역한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만일 19:25에서 아파르를 일반적인 의미의 땅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고엘이 마침내 땅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유추해 보아야 한다. 고드프리 드라이버(Godfrey R. Driver)의 경우 “먼지 위에 선다”라는 의미를 “법정에 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²³⁾ 그 이유는 구약성경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타작마당 혹은 성문 안인데 그 두 장소는 먼지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NEV 번역 역시 “rise last to speak in court”라고 번역함으로써 아파르가 법정으로 사용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⁴⁾ 욥의 고엘이 최후의 변론자로서 욥을 위해 법정에 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린스가 주장하듯이 아파르가 법정을 의미하는 타작마당이나 성문 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²⁵⁾ 클린스는 아파르를 “땅”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죄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욥이 살고 있는 “땅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무죄증명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²⁶⁾

둘째, 아파르를 죽음과 관련된 먼지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새뮤얼 드라이버(S. R. Driver)는 무덤으로 이해하며 아파르를 “upon my grave”로 번역하였다.²⁷⁾ 이 경우 욥의 고엘은 욥의 생전보다는 욥의 사후에 무덤 위에 설 것이고, 욥의 무죄한 죽음과 관련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셋째, 아파르를 문자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럴드

23) G. R. Driver, “Problems of the Hebrew Text and Language,” H. Junker and J. Botterweck eds, *Alttestamentliche Studien: Friedrich Nötscher zum sechzigsten Geburtstag* (Bonn.: P. Hanstein, 1950), 47.

24) Clines, *Job 1-20*, 433.

25) 윗글, 460-461.

26) 윗글, 460-461.

27)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173-174.

젠젠(Gerald Janzen)은 아파르를 미약한 인간존재의 상징으로 이해한다.²⁸⁾ 젠젠은 욥기에서 먼지가 죽음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하는 구절들을 제시하며 25절을 “My redeemer lives; The last one in behalf of dust will arise”로 번역한다. 미약한 인간으로 대변되는 욥으로 상징되는 먼지를 위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고엘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참조. 창 2:7).²⁹⁾ 존 그레이(John Gray) 또한 “땅위에 선다”는 표현을 문자적인 뜻보다는 “인간사에 결정적이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본다(민 10:27; 사 2:19-21; 렘 2:27; 참조. 욥 31:14).³⁰⁾

욥기 19:25 본문은 욥의 고엘이 누구인지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엘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며 이어지는 19:26-27의 본문에서도 고엘이 누구인지 보다는 욥이 고엘을 통해 소망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19:26-27에서 욥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며 강조함으로써(“보리라.” 26절; “보리니,” 27절; “보기를,” 27절)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고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욥은 고엘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무죄한 고난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욥기 19:25-27은 욥의 고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욥의 고엘은 욥기 19장의 문맥 가운데 다양한 해석학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IV. 욥의 고엘은 누구인가?

1. 욥의 고엘로서의 가까운 친족

구약성경에서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 속량자’(레 25:25)로서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음과 같은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된다.³¹⁾ 1) 기업 무를

28) Janzen, *Job*, 141.

29) 윌슨, 141.

30) Gray, *The Book of Job*, 275

31) 레위기 25장은 고엘의 역할을 할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레25:48-49): 형제

자: 고엘은 가족 가운데 가난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문의 땅을 가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 팔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의 땅이 가문 안에 머물러 있도록 다시금 사야 한다(레 25:25-34; 룻 4:3-6; 렘 32:6-15). 2) 속량자: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빚을 갚아주고 그 친족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레 25:47-54). 3) 수혼제도를 이행할 자: 가까운 남성 친족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을 경우 미망인이 된 가까운 친족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고인의 아들을 낳음으로 형제의 이름과 유산이 되는 땅을 가족 안에 머물게 하는 제도를 이행한다(신 25:5-6; 룻 3:12-13; 4:5). 4) 피의 보복자: 가까운 친족이 의도적으로 살해당했을 때, 살해한 자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민 35:12, 19-27; 신 19:6, 11-12; 수 20:2-5, 9).³²⁾ 그러나 욥기 19장에서 욥이 기대하고 있는 고엘은 구약성경의 전형적인 고엘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욥이 기대하는 고엘의 역할은 기업 무를 자도, 빚을 갚아줄 속량자나 수혼제도를 이행할 자도, 또한 피의 보복자도 아니다. 구약성경의 고엘인 '가장 가까운 친족 속량자'로부터 욥의 고엘을 찾으려는 학자들은 구약성경의 전형적인 고엘의 역할을 넘어서는 욥의 고엘을 제안하고 있다.

욥의 고엘을 가까운 친족으로 보는 견해는 랍비 사디아 가온(Saddiah Gaon)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³³⁾ 랍비 사디아는 욥의 고엘을 19:23-24에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글을 새기는 것과 관련하여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⁴⁾ 사디아는 욥의 고엘의 역할을 욥의 죽음 이전이나 죽음 이후에 무죄 증명할 자로 보는 대신 바위에 욥의 무죄함을 기록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욥의 무죄함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한다. 최근에 수리아노는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글을 새기는 것(19:23-24)을 철기 II 시대 유다 매장지의 비문과 관련하여 이해하

(גא), 삼촌(גור), 사촌(삼촌의 아들, גורר בני), 친족(הרחמים),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고엘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성전과 거룩한 백성』(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6), 520.

32) Balentine, *Job*, 297; Clines, *Job 1-20*, 459.

33) Seow, *Job 1-21*, 823.

34) Stephen J. Vicchio, *Job in the Medieval Worl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6), 92-93.

며, 이 비문을 기록하는 것을 죽은 이의 가까운 친척인 고엘의 역할로 제안하였다.³⁵⁾ 수리아노는 아주 특별한 경우 고엘은 죽은 친족의 요구를 비석에 새김으로 옴과 같은 인물의 주장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리아노의 주장은 25절의 고엘을 살아 있는 가까운 친족으로, 아하론은 부사로서 옴이 죽은 이후의 시점으로 이해하며 옴의 고엘은 옴을 위하여 묘비를 작성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19장에서 옴이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고엘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옴의 고엘로서 옴의 자녀들은 세상을 떠났고, 아내, 옴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옴을 낳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6:15; 19:13-20). 옴에게 가족들은 가까운 친족인 고엘로 느껴지기 보다는 오히려 “낳은 사람”처럼 되었다(19:13, 15, 17).

2. 옴의 고엘로서의 하나님

옴이 기대하고 있는 고엘이 구약성경의 전형적인 ‘가장 가까운 친족 속량자’와 전형적인 고엘의 역할을 넘어서게 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옴의 고엘로 생각해 왔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을 옴의 고엘로 이해하고 있다.³⁶⁾ 하나님을 옴의 고엘로 이해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근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약성경에서 고엘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친족 속량자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엘로 나타난다(시 19:14[15]; 119:154; 잠 23:11; 렘 50:34; 애 3:58). 특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고엘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

35) Suriano, “Death, Disinheritance, and Job’s Kinsman—Redeemer,” 49–66.

36) 강철구, “옴의 하나님 이해: 옴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63집 (2017년 3월), 136–147; 하경택, “나는 알고 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빌닷에 대한 옴의 두 번째 대답— 옴기 19장 1–29절,” 32–46; Aron Pinker, “A New Interpretation of Job 19:26,” 3;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171–175; Seow, *Job 1–21*, 806–807; H. J. Jeremisson, “Ich weiß, daß mein Erlöser lebt”(Hiob 19,23–27).” In *Gott und Mensch im Dialog* (FS O. Kaiser), ed. M. Witte, (Berlin: de Gruyter, 2004), 688.

다(사 41:14; 43:1; 44:6, 24; 47:4; 48:17; 49:7, 26; 54:5, 8; 59:20; 60:16; 63: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고아와 억압 받는 자를 보호하는 고엘의 역할을 한다(출 6:6; 15:13; 시 69:19; 74:2; 103:4; 잠 23:11; 렘 50:34).³⁷⁾ 특히 하나님이 고엘로 여겨질 때는 법적인 소송에서 정의를 보장 받기에 무력한 자들을 위해 변론하시므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욥기 19장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는 욥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다(시 119:154; 잠 23:11; 애 3:58).³⁸⁾

둘째, 욥기 19:25에서 욥의 고엘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19:25의 히브리어 **יְהוָה אֱלֹהַי**를 “나의 고엘은 살아 있다”로 해석하는 대신 “나의 살아계신 고엘”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명칭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고 보고 있다(신 5:26; 수 3:10; 삼상 17:26).³⁹⁾ 둘째, 욥은 25b에서 자신의 고엘이 땅위에 설 것임을 주장하며 25b를 아하론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하론을 “마지막”과 관련된 명사로서 이해한다면 이사야 44:6절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⁴⁰⁾ 이사야 44:6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엘)”이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아하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고엘과 아하론이 함께 나온 구절은 이사야 44:6과 욥기 19:25뿐이다.⁴¹⁾ 이사야 본문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욥이 기대하고 있는 고엘은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욥의 고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히브리 신앙의 변증법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이해한다.⁴²⁾ 19:1-24에서 욥이 하나

37) Habel, *The Book of Job*, 304.

38) J. J. Stamm, “G’l, to redeem,”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Peabody, MA: Hendrikson Publishers, 1997), 292.

39) Seow, *Job 1-21*, 806-807.

40) Janzen, *Job*, 140-141.

41) 윗글, 140-141.

42) Seow, *Job 1-21*, 804. 예를 들면, 아론 핑커(Aron Pinker)는 욥의 고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욥기 19:1-24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적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던 욥이 갑자기 하나님을 자신의 고엘로 믿고 있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 신앙의 변증법적인 특성을 언급한 측면이 있다.

욥의 고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학자들은 몇 가지 설명을 통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씨아오는 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욥이 자신의 고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처럼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대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욥의 열정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고엘로 상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⁴³⁾ 새뮤얼 드 라이버는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욥의 죽음 이전의 하나님과 죽음 이후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⁴⁴⁾ 죽음 이전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자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엘로 나타나셔서 무죄 증명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한다. 캐서린 델(Katharine Dell)도 욥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과 무죄 증명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있다고 이해하면서, 욥의 무죄 증명은 죽음 이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⁵⁾ 이 수정된 견해들은 하나님이 욥의 고엘로 나타나시더라도 욥의 사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욥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엘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욥의 대화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한 문제에 봉착한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주장한다. “욥은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땅위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실 것임을 확신한다. 그는 또한 이 하나님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피부와 살을 붙일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그는 의지할 것이고 그의 눈은 볼 것이다.” Aron Pinker, “A New Interpretation of Job 19:26,” 3.

43) Seow, *윳글*, 806-807.

44)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171-175.

45) Katharine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1), 172.

자신의 고엘로 확신하고 살아생전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해 자신의 무죄증명을 할 것을 확신하였다면, 에드워드 키산(Edward Kissane)이 언급한 것처럼 욥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전체의 논쟁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⁴⁶⁾ 만일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무죄증명을 받게 된다면, 19장을 통해 하나님의 적대적 폭력에 대해 장황하게 불평하거나 자신의 말을 영원히 바위에 새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⁴⁷⁾

또한 욥이 하나님을 고엘로 믿었다면, 욥기 19장 이후 욥은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19장 이후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참하게 죽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다(30:23). 욥은 19:25에서 자신의 고엘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30:23에서도 욥은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는 폭력 가운데 죽게 하실 것을 안다고 표현한다. 19장 이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분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분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기를 원하고 있다(23:14-17; 31:35). 욥기 19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고엘로 생각했다는 견해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3. 욥의 고엘로서의 천상의 중재자

욥의 고엘을 가까운 친족 혹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학자들은 욥의 상황을 변론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상의 존재임을 제안한다. 욥은 19장 이전에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천상적인 증인 혹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천상적인 존재를 소망하였다. 욥은 9:32-33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하늘에 있는 “증인”과 “보

46) E. J. Kissane, *The Book of Job* (Dublin: Browne & Nolan, 1939), 120.

47) 윗글, 120.

증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16:19). 욥이 기대한 천상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엘리바스와 엘리후의 말에도 등장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불평할 지라도 “거룩한 자들” 중 하나라도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5:1). 엘리후는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대변하는 역할을 할 천상적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한다(33:23). 욥기에는 욥의 고난에 도움을 줄 천상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19장에서 욥이 자신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할 천상적인 존재에 대해 희망하는 것은 욥기에서 낯선 부분이 아니다.

욥의 고엘을 천상의 존재로 이해하는 학자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욥의 고엘을 고대근동의 개인과 관련된 신의 한 형태로 보려는 이해가 있다.⁴⁸⁾ 마빈 폼의 경우 수메르 신학과 관련하여 개인과 관계된 신으로 보고 있다.⁴⁹⁾ 커티스도 개인과 관계된 신은 최고의 신에 대항하여 인간의 옹호자 역할을 하곤 한다고 제안한다.⁵⁰⁾ 욥의 고엘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개인적인 신이라는 견해의 경우 구약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기에 납득할 만한 논거가 필요하다.

둘째로 노만 하벨(Norman C. Habel)은 욥의 고엘을 욥이 기대하던 판결자(9:33)와 증인(16:19)과 같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천상적인 존재로 이해한다.⁵¹⁾ 욥의 개인적인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달리 하벨은 욥의 불의한 고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죄 증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를 강조한다.⁵²⁾ 하벨은 욥기 1-2장의 천상회의에서 천상의 존재 중 하나인

48) Pope, *Job*, 146; John B. Curtis, “On Job’s Witness in Heaven,” *JBL* 102(1983), 549–562; Hans-Peter Müller, “Keilschriftliche Parallelen zum biblischen Hiobbuch: Möglichkeit und Grenze des Vergleichs,” *Or* 47 (1978), 365–370.

49) Pope, *Job*, 146

50) Curtis, “On Job’s Witness in Heaven,” 549–562.

51) Habel, *The Book of Job*, 306.

52) 마이클 오블레이스(Michael D. Oblath)는 서론의 사탄이 욥의 고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였다. Michael D. Oblath, “Job’s Advocate: A Tempting Suggestion,” *BBR* 9 (1999), 189–201.

적대자(사탄)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근거로 욥이 법정에서 하나님과 공정한 재판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3의 천상적 존재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하벨의 주장에도 여러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질문은 욥은 천상적인 판결자(9:33)에 대해 상상했지만 이내 그러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욥의 생각이 다시 변하여 천상적인 고엘을 소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질문은 만일 욥이 자신의 고엘을 천상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왜 욥은 19장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무죄 증명하기를 원하면서도 천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중보하는 천사의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주전 2세기의 성서 이후 문헌이기에 욥기에서 중보하는 천사의 개념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약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일이다.⁵³⁾

V. 욥의 고엘, 천상의 중재자, 그리고 상상력

욥의 가까운 친족, 하나님, 그리고 천상의 중재자는 욥의 고엘로 제기될만한 근거가 있는 동시에 욥의 고엘로 인식되기 어려운 한계를 각각 가지고 있다. 욥이 고엘을 언급한 후 19:26-27에서 욥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보리라”, 26절; “보리니”, 27절; “보기를”, 27절). 욥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고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를 얻음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욥은 19장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변론의 기회를 갖기를 소망했었다.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고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욥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전통

53) Balentine, *Job*, 550.

적인 견해처럼 하나님께서 고엘의 역할을 하셔야 하지만, 욥은 19장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신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⁵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욥의 고엘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욥기에서 욥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무죄한 고난이라는 딜레마에 대해서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대안을 계획하여 이해하려 한다. 캐롤 뉴섬(Carol Newsom)은 욥이 자신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계획하는 것을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이라고 칭하고 있다.⁵⁵⁾ 1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변론의 기회를 얻기 위한 창조적인 대안으로서, 자신의 고엘을 언급하고 있다. 욥은 그러한 천상적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19장 이전에 몇 차례 언급하였다(9:33; 16:19). 욥의 상상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한 가능한 창조적인 대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욥이 기대하는 천상적 존재는 마빈 폼과 존 커티스(John B. Curtis)와 같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개인적 신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벨의 견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천상적 존재로서 욥의 무죄 증명을 가능하게 할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예. 서론의 사탄).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하벨의 견해에는 몇 가

54) 욥의 문제는 결국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을 계몽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때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고엘의 역할에 해당된다. 참조, 강철구, “욥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제65집』 (2017년 9월), 12-37; 안근조,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제20집』 (2006년 4월), 147-166.

55) 뉴섬은 욥기의 다양한 등장인물들과 장르가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각각의 관점을 통해 말하고 있으며 어느 한 관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며 그녀의 책 제목을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욥기: 도덕적 상상력의 경연)이라 하고 있다. Carol A. Newsom, *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Izaak J. de Hulster, “Imagination: A Hermeneutical Tool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BI* 18 (2010), 114-136.

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하벨의 견해에 제기된 질문들은 욥이 상상력 가운데 자신의 천상적인 고엘을 소망했다고 이해할 때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첫째, 천상적인 판결자(9:33)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욥이 왜 천상적인 고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9:33)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판단할 만한 권세를 가진 천상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력을 이내 부정하였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증인(16:19a)과 증보자(16:19b), 그리고 천상적인 고엘의 경우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천상적인 판결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천상적인 증인과 증보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16:21). 욥은 고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소망하고 있다.

둘째, 욥의 고엘이 실재하는 천상적인 존재라면, 욥은 19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하기에 천상적인 고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된다. 욥이 고엘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욥이 그러한 천상적 존재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하기는 했으나 그 실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욥의 이러한 상상력은 욥기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스올에 감추셨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실 때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였다(욥 14:13). 하벨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한 이러한 욥의 상상력에 대해 “욥이 도발적인 대안을 꿈꾼다”고 표현하며 “그는 자신

의 온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을 기꺼이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⁵⁶⁾ 욥은 구약학적 배경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스올을 피난처로 상상하고 있다. 욥이 앞서 소망했던 천상적인 판결자(9:33), 하늘에 있는 “증인”(16:19a)과 “보증인”(16:19b) 역시 욥이 자신의 불의한 고난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상력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⁷⁾

셋째, 욥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천상적인 고엘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변론할 방안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천상적인 고엘을 소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욥의 천상적인 중재자에 대한 상상력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주전 2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 천상적인 존재(천사)에 대한 기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욥의 천상적인 중재자에 대한 상상력이 주전 2세기 이후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가능한 대안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⁵⁸⁾

56) Habel, *The Book of Job*, 242; 존 하틀리(John Hartley)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욥의 “비현실적인 소망”이라고 표현하며, 욥의 이러한 청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를 입증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욥은 믿고 있다고 이해한다.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236.

57) 브루스 주커만(Bruce Zuckerman)은 욥의 고엘을 “욥의 절실한 희망의 산물”로서 욥의 편에서 실제의 신인 하나님과 대응할 수 있는 가상의 신으로 제안하고 있다. 린지 윌슨(Lindsay Wilson)은 앞서 판결자(9:33), 하늘에 있는 “증인”(16:19a)과 “보증인”(16:19b)은 욥의 고엘과 다른 인물들이 아니라, 욥의 희망이 담긴 가상의 법적인 인물로 제안하고 있다. Bruce Zuckerman, *Job the Silent: A Study in Historical Counterpo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14–115; Lindsay Wilson, “Realistic Hope or Imaginative Exploration? The Identity of Job’s Arbiter.” *Pacifica* 9(1996), 243–52.

58) 데럴 한나(Darrel D. Hannah)는 증보하는 천사의 개념이 주전 2세기 이후 나타남을 언급하면서도 만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욥기일 것이라고 언급한다. Darrell D. Hannah, “Guardian Angels and Angelic National Patrons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Friedrich V. Reiterer et al. eds., *Angels, The Concept of Celestial Beings-Origins, Development and Reception* (Berlin: de Gruyter, 2007), 415.

VI. 나가는 말

1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고엘에 마지막 소망을 두고 있다. 비록 욥기 전체에서 욥이 기대하던 고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욥기 19장에서 욥의 상황은 하나님을 자신의 고엘로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19장의 상황에서 욥이 기대하는 고엘의 역할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욥의 편에서 그의 무죄를 증명함으로써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구약에서 고엘은 가까운 친족 혹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욥기 19장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말들을 보면 가까운 친족과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는 자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욥의 고엘을 가까운 친족, 친구,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게 도울 수 있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욥기 본문은 이미 여러 차례 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욥의 무죄함에 증인이 될 천상적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판단할 천상의 재판관에 대해서 상상을 했었고(9:33), 하늘의 증인(16:9a)과 증보자(16:9b)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엘리바스는 일찍이 욥의 무고함에 귀 기울여줄 천상적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4:18; 5:1), 엘리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천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한다(33:23). 욥기 서론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천상적인 존재인 사탄(적대자)도 묘사되어 있다(1-2장).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을 위해 변론할 천상적인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소망하였고, 그러한 존재를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처음에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기대가 헛된 것임을 표현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는 욥기가 진행 될수록 소망이 되어간다. 1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천상적인 고엘이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던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천상적인 중재자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생각해본다. 주전 2세기 이후의 성서 이후 문헌들에서 하나님과 개인 사이를 중보하는 천사들의 역할은 욥의 천상적인 고엘에 대한 상상력이 허황된 상상이 아닌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대안이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해준다.

VII. 참고문헌

- 강철구, “욥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제65집 (2017년 9월), 12-37;
- .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63집 (2017년 3월), 139-164.
- 안근조,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제20집 (2006년 4월), 147-166.
- 하경택, “나는 알고 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 욥기 19장 1-29절.” 『성경연구(설교자를 위한)』 127 (2005년 6월), 32-46.
- Balentine, Samuel E. *Job* (Smyth and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and Helwys Publishing, 2006.
-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 Curtis, John B. “On Job's Witness in Heaven.” *JBL* 102 (1983), 549-562.
- Dell, Katharine J.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1.
- Driver, Godfrey. R. “Problems of the Hebrew Text and Language.” H. Junker and J. Botterweck eds. *Alttestamentliche Studien: Friedrich Nötscher zum sechzigsten Geburtstag*. Bonn. : P. Hanstein, 1950, 46-61.

- Driver, Samuel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ICC). Edinburgh: T. & T. Clark, 1977.
- Erickson, Amy. "‘Without My Flesh I Will See God’: Job’s Rhetoric of the Body." *JBL* 132 (2013), 295-313.
- Gray, John.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Hannah, Darrell D. "Guardian Angels and Angelic National Patrons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Friedrich V. Reiterer et al. eds., *Angels, The Concept of Celestial Beings—Origins, Development and Reception*. Deuterocanonical and Cognate Literature Yearbook 2007. Berlin: de Gruyter, 2007, 413-435.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Hermisson, H. J. "‘Ich weiß, daß mein Erlöser lebt’ (Hiob 19,23-27)." In *Gott und Mensch im Dialog* (FS O. Kaiser), ed. M. Witte. BZAW 345. Berlin: de Gruyter, 2004, 667-688.
- Janzen, J. Gerald.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Kissane, E. J. *The Book of Job*. Dublin: Browne & Nolan, 1939.
- Meshel, Naphtali. "Whose Job Is This? Dramatic Irony and double entendre in the Book." Leora Batnitzky and Ilana Pardes eds., *The Book of Job: Aesthetics, Ethics, Hermeneutics*. Berlin; Boston: de Gruyter, 2015, 47-75.
- Müller, Hans-Peter. "Keilschriftliche Parallelen zum biblischen Hiobbuch: Möglichkeit und Grenze des Vergleichs." *Orientalia* 47 (1978), 360-375.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 .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 University Press, 2003.
- Oblath, Michael D. "Job's Advocate: A Tempting Suggestion," *BBR* 9 (1999), 189-201.
- Pinker, Aron. "A New Interpretation of Job 19:26." *JHS* 15(2015), 1-23.
- Pope, Marvin H. *Job*. (AB 15) 3rd ed. Garden City, NY: Doubleday, 1973.
- Seow, Choon Leong.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Illuminatio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 Stamm, J. J. "G¹, to redeem."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Peabody, MA: Hendrikson Publishers, 1997, 288-296.
- Suriano, Matthew J. "Death, Disinheritance, and Job's Kinsman-Redeemer." *JBL* 129 (2010), 49-66.
- Vicchio, Stephen J. *Job in the Medieval Worl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6.
- Wilson, Lindsay. "Realistic Hope or Imaginative Exploration? The Identity of Job's Arbiter." *Pacifica* 9(1996), 243-252.
- Zuckerman, Bruce. *Job the Silent: A Study in Historical Counterpo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검색어
욥기
고엘
구원자
고난
상상력

Job's Go'el, a Heavenly Arbiter, and Imagination (Job 19:25)

Jun Kim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 D.

Job 19:25 contains Job's desire for his *gō'ēl* ("Redeemer"), who will deliver Job from his unjust suffering. The topic of Job's *gō'ēl* is so important for understanding how Job wants to solve his unjust suffering. However, the text is ambiguous and difficult to interpret that so far many scholars have proposed various views of the *gō'ēl*, whereas few studies have been done on this subject by Korean biblical schol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Job's *gō'ēl* is one of the heavenly beings who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Job to face God and to plead his unjust suffering, and that this heavenly being is an imaginary entity that Job desires. For that purpose, this paper proceed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t shows what situations entail Job's desiring his *gō'ēl* earnestly in Job 19:1-24. This will provide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what role Job expects from the *gō'ēl*, and of who

can become Job's *gō'ēl*. Second, various hermeneutic possibilities for Job's *gō'ēl* are presented through textual studies on 19:25. Third, three representative views on Job's *gō'ēl* (Job's nearest relative, God, and a heavenly being) are mentioned and diagnosed in terms of the advantages and problems of each. Finally, Job's dire situation is presented in which Job had no choice but to wish to have his heavenly being, and suggests Job's *gō'ēl* as an imaginary heavenly being under God's sovereignty.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such a new alternative by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views on Job's *gō'ēl*.

Keywords

the book of Job

gō'ēl

Redeemer

suffering

imagination

- 투고일: 2018년 1월 13일
- 심사일: 2018년 2월 12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2월 18일

www.kci.go.kr